

# 고난의 위대함

마태복음 20:17-34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빈이고, 윌링던 교회의 목사 중 한 명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왕국의 충돌이란 제목으로 설교 시리즈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마태복음 20:17-34를 계속 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역대 최고의 운동선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스포츠 토론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이러한 토론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농구에서는 마이클 조던과 르브론 제임스와 같은 이름이 나옵니다.

하키에서는 웨인 그레츠키와 마리오 르미외가 나옵니다.

미식축구에서는 톰 브래디와 로렌스 테일러가 나옵니다.

축구에서는 펠레와 메시가 나옵니다.

그 스타들과 직접 인터뷰를 했거나, 그 스타들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과 했던 인터뷰를 들어보면, 그 운동선수들의 타고난 재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강조되는 것은 운동과 연습의 일상입니다. 그들은 이 대단한 운동선수들이 체육관이나 경기장에서 혼자서 같은 훈련을 반복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엄격한 식단과 훈련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스타들은 아무도 안 볼 때 그 모든 것을 겪었고 그들은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겪어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대단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0:17-34를 살펴보면, 위대함에 이르는 예수님의 독특한 방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트로피를 위해 고된 훈련과 식단 조절을 겪어 내지만, 예수님은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왕관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실 것입니다.

위대함에 이르는 세상의 방법이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가지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난을 당하는 왕(17-19).
2. 섬기는 왕(20-28).
3. 머물러 서시는 왕(29-34)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19:16-30; 20:1-16을 살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포도원의 품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요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1. 고난을 당하는 왕.

마태복음 19:1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 강을 건너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계속하셨고, 마태복음 20:29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향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세 번째로 예고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21-23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22-23이지만 17:12에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감독 하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심지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큰 실수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주제를 피하려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 같은 분이 조롱 당하고 채찍질 당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그저 어색한 대화를 피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세 가지 예언은 모두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받을 고난을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추가된 사항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예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을 고려할 때,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으며, 그 이야기의 끝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자신에 대한 예언을 더 확고히 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세 번이나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뿐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고난을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제 말은, 이 당시는 명예와 수치 문화였고, 배신당하고 조롱 당하고 고통받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이것을 드러내고 자신을 인자라고 언급함으로써, 다니엘 7장에서 말하는 제자들의 환상은 끝나게 됩니다.

다니엘 7:13-14

13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 7장은 다니엘이 인자가 성취할 일에 대한 환상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시자마자, 그들은 모두 이 구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생각에 큰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마태복음 20:17-19로 돌아가서 이 구절의 맥락에 28절을 추가하면,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제자들의 토대를 흔들었습니다. 인자는 군사적 수단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인자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다니엘서에 있는 예언도 맞고,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예언도 맞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조롱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고난을 겪으신 왕이 오늘날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경배하는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주린 자를 먹이신 예수님. 비유를 가르치신 예수님.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 죽음 당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지만 지금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을 경배합시다.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의 말씀을 읽고, 그의 고난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 갑시다.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2. 섬기는 왕.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의 고난과 죽음을 상기시키는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다음 주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0:20으로 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라는 단어를 주목해보면, 대화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화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을 대신하여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해달라는 요구, 한 명은 주의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라는 것은 위대함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자신이 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40에 따르면 살로메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른 마리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21절 끝에서 예수가 그의 "왕국"을 올바르게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제자들이 이 대화 때문에 "분개"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와 그 아들들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고 아마 가족적 관계가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먼저 묻지 않았기 때문에 분개했습니다.

이 대화의 맥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데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 처형 중 한 명은 홀 마크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녀는 모든 홀마크 영화를 봤고 그 영화들이 대단하다고 저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볼 계획이 없습니다. [사진] 하지만 최근 몇 편의 기사에서 Hallmark 영화의 기분 좋은 공식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언급했습니다.

혹시 그들도 예수님의 고난을 피하는 데 동참하고 있는 걸까요?

살로메와 그녀의 아들들은 예수님 이야기의 듣기 좋은 부분에 동참하려 합니다. 그들은 그가 통치하고 다스리며 하늘의 왕좌에 앉는 데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그가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왕국의 충돌입니다. 세상이 위대함을 정의하는 방식과 예수님께서 위대함을 이루시는 방식의 상충됨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정치적 수단을 통해 위대함을 성취하지 않을 것이고, 군사적 수단을 통해 위대함을 성취하지 않을 것이며, 인기 경연 대회를 통해 위대함을 성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통해 위대함을 선포하시며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른 종교나 사이비 종교에서는 창시자와 지도자에 집중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3-24

2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위대해 지실 것이고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걸림돌이요 수치스러운 일들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가 예수님과 같은 잔을 마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것이 자신들의 위대함에 대한 것이라고 믿지만 그것은 위대함으로 가는,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요점을 놓친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천국에 가신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아마도 그 잔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그 잔은 누군가가 "모두 받아들이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마신다"라는 구약성서적 개념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그 컵은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을 가리킵니다.

제가 어떻게 버나비에서 최악의 장소는 스틸 크릭의 코스트코라고 항상 말하는지 아시나요?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생겼고, 그 장소는 브라이언 애비뉴에 있는 버나비 코스트코입니다. 주차가 더 나뻐고 문밖까지 줄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경적을 울리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제 취향의 장소). 최근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 영상이 공개되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인간이 주차장에서 최악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 가슴 아픈 문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차 공간을 두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보고 어깨를 으쓱하며 "어쩔 수 없지"라고 말씀하신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는 두 당사자에게 서로 떨어져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은 고통과 분노를 없애지 못합니다. 사과하는 것은 좋은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고통과 분노를 없애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그 모든 고통과 분노를 자신이 다 짊어지고 죽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도 그것을 짊어지려 하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짊어지십니다.

28절의 마지막을 보면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마태 복음에서 유일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십니다. 위대하신 왕은 죄의 결과, 즉 우리가 서로를 잘못 대하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모든 분노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모든 자들을 화해시키십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라고 말씀하신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성경은 두 사람 모두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2:1-2

- 1 그 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 2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는 순교한 첫 번째 제자입니다.

요한 계시록 1:9

9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성경에 따르면 요한은 기독교 박해로 인해 밧모섬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모든 야망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내 결혼 생활 구절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6:33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 결혼의 목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것으로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로라와 제가 결혼 생활에서 위대함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고통을 가져올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모든 위대함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2:3

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야망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이기적인 야망은 잘못된 것이며 이것이 예수님께서 25절에서 "25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 집권자(25)
- 크고자(26)
- 섬기는 자(26).
- 종(27)

“위대함”이라는 단어의 이면에 있는 의미는 첫 번째 또는 최고로 이해됩니다. 제자들은 섬기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이 그분처럼 첫 번째이자 최고의 섬기는 자와 종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캐나다에 사는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괜찮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안전하다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괜찮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 말은, 우리는 교회에 제시 시간에 가는 것조차도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통받는 것은 예수님의 눈에 위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누가복음 22:24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4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만약 누가복음 22장이 올바른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이라면, 위대함에 대한 이 이야기 이후에 일어나는 대화인데, 그들은 그 뜻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끄시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께 여러분이 그 고난을 잘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종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대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왕을 위해 고난받는 그분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고통받는 종들은 그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것이며, 가운데 자리는 많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통받으신 분을 위한 자리이며, 그의 이름은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 가만히 머물러 서시는 왕.

마태복음 20:29로 넘어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여리고"로 떠나가신 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보라"고 하는데, 이는 곧 일어날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명의 눈먼 사람이 있는데, 마가복음 10:46에 따르면 눈먼 사람 중 한 명의 이름은 바디매오입니다. 이 눈먼 사람들이 왜 여리고에 있었을까요? 여리고는 장미의 도시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4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발삼 식물 때문에 여리고에는 눈먼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진]

발삼 나무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던 송진이 낫고, 그래서 눈먼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여리고에 몰려들었습니다.

두 눈먼 사람은 눈이 멀었고 아직 치유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8:35-43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먼 사람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군중 속의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고, 그들이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고 대답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장면의 구성입니다.

다음 구절로 넘어가서 강조 표시를 하겠습니다.

- 소리 질러 이르되(30).
-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31)

이제 눈먼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무리는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는데, 아마도 자신들이 예수님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소동이 있었거나 두 눈먼 사람이 너무 시끄러웠을 수 있는데 이것은 명예/수치심 문화에서는 당혹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 눈먼 사람은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당시 눈먼 사람들은 그들을 도울 의료 서비스도 없고 재정적으로 지원할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눈먼 사람들은 거지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 본문 처음 두 시나리오와 달리 제자들은 어색한 상황을 피하고 싶어 했지만, 이 눈먼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았고,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로라가 두 번째 아이 오브리를 낳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분만실에 있었던 것과 그게 언제였는지 분명히 기억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우리와 함께 방에 있었습니다. 분만 중에 로라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간호사 중 한 명이 "조금만 소리를 낮춰 주실 수 있으세요?"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제 아내에게 자극했고, 제 아내의 남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간호사의 말을 듣자마자 그녀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두 눈먼 남자는 꾸지람을 들은 후 부끄러움 없이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자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32절을 함께 보시면서 "멈추다" 에 표시하세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에서는 "멈추다"라고 말하고 다른 번역에서는 "머물러 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구절 전체의 맥락입니다. 맥락은 그의 조롱, 채찍질, 십자가 처형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저는 지금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멈출 때가 아니라,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과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치르시게 될 대가는 너무 심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 길에 멈춰 서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4절에서 예수님께서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용어는 또한 연민으로 이해되며, 같은 용어가 다음에서도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9:36

36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가복음에서 이 이야기의 눈먼 거지는 예수님의 연민에 감동하여 걸음을 벗어버립니다. 눈먼 거지는 이미 가진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꺼이 가진 것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마태복음 20:34를 한 번 더 읽고 "따르니라"를 강조해 보겠습니다.

34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두 눈먼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간 것 같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읽은 부자 청년과는 달랐습니다.

[사진] 패니 크로스비는 8,000곡이 넘는 찬송가를 작곡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생후 6주 때 의료적 실수로 시력을 잃었지만, 시력을 잃은 것에 대해 절대 불만이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시력을 잃은 것을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저는 여전히 앞이 보이는 않는 쪽을 선택할 것입니다... 제가 죽었을 때, 축복받은 구세주의 얼굴이 제가 처음으로 보게 될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패니 크로스비

이 두 눈먼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고 말하는 것은 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궁금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예수님이 조롱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을까요? 그들은 고침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보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보았다면, 그들은 고난받는 종의 위대함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그의 고난과 죽음의 위대함을 계속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하신 그의 위대함도 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